

환희·감동의 열전 17일 ... '세계 수영 도시 광주' 빛났다



2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회식 문화행사에서 관중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연을 즐기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정수석 김조원 靑 수석 3명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신임 민정수석에 김조원(62·행정고시 22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시민사회수석에 김기성(60)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일자리수석에는 황덕순(54)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승진 발탁했다.

<관련기사 7면>

제작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에 임명됐던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2년 2개월 만에 교체되면서 수석급 이상 원내 멤버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만 남게 됐다.

조 수석은 내달 초·중순께 단행될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국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김조원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을 구축, 집권 중반기 개혁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정태호 수석(서울 관악)과 이윤선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8월 개각'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미와 함께 내년 총선을 위한 차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무-사정 측면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해온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참여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김조원 사장을 앉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GWANGJU 2019. FINA WORLD CHAMPIONSHIPS
광주세계수영대회 폐막

지구촌 최대 수영 축제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8일 폐막식을 끝으로 17일 동안의 열전을 마쳤다.

<관련기사 2·3·4·5·6·22면>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국과 선수단, 대회 기간 중 쏟아져 나온 신기록을 비롯해 국내에서 치러진 국제대회 중 가장 적은 비용인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한 성공적 대회로 평가받았다. 또한, 광주를 찾는 해외 선수단과 관광객에게 각종 공연과 체험으로 남도의 멋과 맛, 흥을 전달해 큰 감동을 안겨주는 등 '문화 대회'로서도 빛이 났다.

이번 대회의 성공을 계기로 이제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마스터스대회(8월5일~18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이 또 한번 결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국·선수단 역대 최대 규모 ... 한국 다이빙 첫 메달 수확 8월 5~18일 세계 수영 동호인의 축제 마스터스대회 열려

광주와 전남 여수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 수구, 하이다이빙, 오픈워터 수영 등 크게 6개 종목으로 나뉜 76개 세부 경기에 전 세계 194개국 2639명의 선수가 참가·등록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의 184개국·2400여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을 1년여 앞두고 열리는 메이저대회인 만큼 세계적인 스타들이 대거 출전해 올림픽 전초전의 기회로 삼았고, 다이빙과 오픈워터 수영, 경영 단체전 등 일부 종목에는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우리나라도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82명의 선수로 대표팀을 꾸려 축제에 동참했다. 여자 수구와 오픈워터 수영에서는 처음으로 대표팀이 구성돼 소중한 첫걸음을 뒀다.

이 가운데 김수지 선수가 국내 다이빙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첫 동메달을 따냈고, 우하람 선수가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 2장을 따내는 등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회였다. 수구와 낚선 종목이었던 오픈워터 수영에서도 첫 대표팀이 구성돼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 최초로 만들어진 '난민팀'(Refugee Olympic Team·ROT)의 일원으로 출전했던 시리아 출신의 남녀 경영 선수 라미 아니스, 유스라 마르디니는 광주대회에 '국제수영연맹 독립 선수'(Independent FINA Athletes·IFA)로 참가하면서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라는 슬로건 아래 치러진 이번 대회에 의미를 더했다.

이번 대회는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지 않은 데다 대회 초반 저조한 관람객으로 흥행 부진이 우려됐지만, 경영과 하이다이빙 등 인기종목이 시작하면서 대회 중반에 관람객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 부문에서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선수단의 스타 부재와 몇몇 종목 제외하고는 세계적 수준과 큰 격차를 보인 경기력, TV 중계 부족 등으로 대회 열기를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대회 성적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중국이 금메달 1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어 러시아가 금메달 12개로 2위를 기록 중이다. 미국과 호주는 각각 금메달 12개, 9개로 3위와 4위에 각각 올랐다.

이런 가운데 카일럽 드레셀(미국)이 6관왕에 오르며 차세대 수영 황제의 등장을 알렸고, 19세의 크리스토프 밀라크(헝가리)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의 접영 200m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번 대회에서 8개의 세계신기록과 14개의 대회

신기록이 작성됐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용섭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장, 홀리오 마글리오네 국제수영연맹(FINA)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회식 문화행사가 열렸다. '아름다운 순환(Circle of Life)'이라는 주제로 열린 폐회식 문화행사는 아름다운 남도의 계절미와 인간의 생애주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유니버스 판타지극으로 진행됐다. 또한, 2021년 차기 개최국인 일본 후쿠오카시가 준비한 홍보영상과 전통춤 공연, 17일 간 광주의 뜨거운 열정과 경쟁을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이 상영되면서 관람객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이어 194개국 참가국들의 국가 입장과 함께 2021년 차기 대회가 치러지는 일본 후쿠오카에 공식 대회가 전달됐고, 이용섭 조직위원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2021년 후쿠오카에서 다시 보기를 약속하며 폐막됐다.

/특별취재단=최권일 기자 cki@

상무지구 클럽 붕괴 예고된 인재 ▶10면
여름옷 입은 광주FC 박진섭 감독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19년 최고의 쌀로 선정된

전남 10대 브랜드쌀




맛있는 전남쌀을

남도장터 www.jnmall.kr

에서 구입하세요

